

전남 자체개발 김 '햇바디 1호' 위판사상 최고가 경신

120kg 한 자루 108만원에 거래
기존 '잇바디돌김' 가격 2배 달해
양식어업인 내년 종자 주문 폭증
"지역별 특성 품종개발 연구 최선"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이 자체 개발한 신
품종 '햇바디 1호'가 김 위판사상 최고가
를 기록해 주목받고 있다.

20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김 생산이 시작된 가운데 지
난 6일 진도위판장에서 '햇바디 1호'가

120kg 한 자루 108만원 가격에 거래됐
다. 이는 기존 잇바디돌김의 2배가 넘는
가격이다. '햇바디 1호'는 김 양식어업인
으로부터 2025년 종자 주문량이 폭증하
고 있다.

'햇바디 1호'는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이 잇바디돌김의 안정적 생산을 목표로
2016년부터 전남해역에서 자생하는 우량
업체를 선별 육종하고 품종 개발 연구에
나서 2023년 개발한 신품종이다.

기존 잇바디돌김보다 각포자(씨앗) 방
출량이 많고 김발에 부착률이 높으데다,

잇바디돌김의 특징인 업체의 꼬불거림이
많고 맛이 좋아 김 양식어업인들에게 인
기가 높다. 업체의 성장이 빨라 채취 횟수
가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어 생산효과도
좋다.

잇바디돌김은 김 원조가 급장처럼 꼬불
꼬불해 곱창김으로 불리는 서남해 양식
토종 품종이다. 김 생산 기간 중 가장 먼저
생산되며 오독거리는 식감과 맛이 좋아
가격도 가장 비싸다. 하지만 생산 기간이
짧고 채도가 어려우며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아 어업인 소득이 불안정한 단점이 있

다. 신품종 '햇바디1호' 개발로 이같은 문
제점이 해소되고 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그동안 국내
최초 양식 김 3종류 모두를 신품종으로 개
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방사무늬김 2종
(해풍1호·해풍2호), 모무늬돌김 2종(해
모돌1호·신품1호)과 잇바디돌김인 햇바
디1호의 등록으로 총 5품종이 품종보호
를 받고 있다.

한편 전국 물김 생산량의 78%를 생산
하는 전남도는 지난 2011년부터 어가에
보급한 '해풍1호'로 김 생산량을 늘려 어

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코
로나19 위기상황에도 2년 연속 수출 1위
품목인 김 수출이 8억 달러 시대에 접어들
어도 김 신품종 종자의 보급에 따른 생산
성 향상 효과로 풀이된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원장은
"어업인 소득이 더 늘도록 고부가가치 브
랜드 김 생산을 위해 급변하는 어장환경
변화에 대응, 양식 현장에서 요구하는 지
역별 특성에 맞는 품종개발 연구에 최선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광주시, 양림선교사모역 '라이다' 실측 재현

광주시·전남대·전기연·기업 협업
내일까지 실감콘텐츠큐브서 전시

광주시는 20일 광주실감콘텐츠큐브
(GCC) VX스튜디오에서 광주의 인공지
능·문화기술로 문화유산에 디지털자료 전
산화(아카이빙)하는 '아시아공동체 전승
문화 플랫폼 구축사업'의 올해 성과 공유
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과 공유회에는 '아시아 공동체
전승문화 플랫폼' 사업에 참여한 한국전
자기술연구원(KETI)과 전남대 산학협
력단을 비롯해 ㈜위프코, ㈜피씨엔, ㈜위
치스, ㈜엠투테크, 국제개발협력실행연
구원 등 지역문화유산 관계기관과 콘텐츠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광주의 미래 자산이 될 '아시아공동체
전승문화 플랫폼 구축사업'은 올해 양림
동 일원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세계
유산에 대한 디지털자료 전산화 데이터를
활용한 시범 콘텐츠가 제작됐다.

광주 양림동은 세계 유일한 선교사들의
전용집단 묘역으로 지역의 성지순례 1번
지로 손꼽히는 곳이다. 양림동 디지털자
료 전산화는 기독교유산 등 근대문화유
산이 산재하고 있는 양림동을 기존의 단

일 문화유산에 대한 점 단위의 3D스캔에
서 확장해 라이다(LiDAR)를 활용한 면
단위의 디지털자료 전산화를 추진했다.

기존 3D스캔은 단일건물 위주로 스캔
해 전산화 자료의 활용이 한정적이었으나
라이다 측량자료는 건물과 함께 건축적
맥락 및 자연·생태정보 등 주변 경관 정보
를 보다 넓게 취득할 수 있어 문화유산 보
존·활용 측면에서 활용가치가 크다.

라이다(LiDAR)는 근적외선 레이저
를 이용해 대상물의 형상이나 거리·위치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우즈베
키스탄 사마르칸트의 레기스탄 광장과 호
라즘 무용에 대한 디지털자료 전산화를
진행했다.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과
중앙아시아인들의 문화가치를 확보한 이
자료는 앞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고려
인마을 등과 협력해 전시·교육 콘텐츠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 문화유산인 중심사,
양림동 근대문화유산, 호남검무에 대한
디지털자료 전산화를 기반으로 제작한 게
임·미디어아트·뮤직비디오 시범콘텐츠를
19일부터 22일까지 광주실감콘텐츠큐브
1층에서 선보인다. 노병하 기자



돌봄이웃 반찬 나눔

광주 북구 운암1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20일 운암1동 행정복지
센터에서 열린 '식사하세용 밑반찬 지원 사업'에서 지역 돌봄이웃들에게 전달할 반찬을 포장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광주시, 아파트 유출지하수 사용료 부과 문제 해결

국민권익위, 광주서 고충민원 회의
당사자 최종 합의...배출관로 설치

광주시와 국민권익위원회, 입주자대표
회, 시공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 아파트 건
립 과정에서 발생한 유출지하수 처리 고
충 민원을 해결했다.

20일 광주시는 시청에서 국민권익위원
회 주관으로 각화동 더샵광주포레스트의
유출지하수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한
'고충민원 해결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조정회의는 지난해 광주시와 국민
권익위원회에 접수돼 민원이 지속되고 있
는 1일 1100톤이 넘는 유출지하수의 하수
도 사용료 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
렸다.

회의에는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
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김상훈 입주
자대표회장, 김명준 포스코이앤씨 CS실
장, 정준호 국회의원,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입주

자대표는 유출지하수를 하천으로 배출하
기 위한 관로 신설 방안을 담은 조정서에
서명함으로써 민원 해결에 최종 합의했
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공동
주택에서 발생한 유출지하수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
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광주시와 국민권
익위원회에 깨끗한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
수도 사용료 부과 등에 대한 민원을 지속
제기했다.

유출지하수는 건축물 공사 등 인위적 행
위에 의해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
를 말하며,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관로로
유입되는 지하수는 '하수'에 해당한다.

광주시는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유
출지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되면 하수도 사
용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공공하수처리시
설로 유입돼 처리되면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처럼 민원의 근본적 해결은
유출지하수를 하천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 유출지하수를 서방천으로 배출하기
위한 관로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국민권
익위원회와 함께 시공사의 참여와 지원을
이끌어냈다.

광주시의 민원 해결 노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
갑),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도 입주민들
을 설득하는 등 힘을 보탤다.

조정서에 따라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는 하수도 사용료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
하고, 광주시는 시공사가 지원한 비용 등
으로 유출지하수를 서방천으로 배출하기
위한 관로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부시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주민들
의 부담은 덜어드리고, 시공사에게 일부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동주택 건축
때 유출지하수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를
서방천 유지용수로 공급해 광주천과 영산
강 수질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보다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 우치동물원, '동물복지' 우수동물원 선정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평가 결과
멸종위기종 진료·스트레스 관리 호평

광주 우치동물원이 국내 동물원 평가에
서 동물복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광주
센트럴호텔에서 열린 '2024년 한국동물
원수족관협회 정기총회'에서 우치동물원
이 동물복지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우치동물원이 협회 어워드 평가 우수기
관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는 서울대공원을
비롯해 국내 14개 동물원·수족관으로
구성된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야생동물과
사육동물에 대한 보전, 복지증진, 연구,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4년 국내 동물원 어워드 평가'는
전국 14개 동물원을 대상으로 '동물원 동
물복지'를 평가했다.

우치동물원은 이번 평가에서 안락사가
고려됐던 기형 설가타옥지거북(체리)의
인공 복갑개 수술을 비롯해 세계 최초 영
무새 인공부리 수술 성공, 호랑이 CT 종
양 진단, 노령 알락꼬리여우원숭이의 휠
체어 적용 등 멸종위기종 동물 진료 부분
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동물의 합사 때 스트레스 호르몬 측
정, 적절한 약물적용(가바펜틴 등), 건강
검진을 위한 메디컬트레이닝 등 스트레스
관리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부산 유기농·친환경 박람회 참가

유기가공식품 115개 품목 전시

전남도가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
물 홍보와 판매지원, 국내외 소비시장 확
대를 위해 21~2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
는 제14회 부산 유기농·친환경·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한다.

전남도는 이번 박람회에서 (사)전남도
친환경농업협회에 협력해 전남도 홍보관

을 운영함과 동시에 시군에서 추천한 친
환경농업 업체를 대상으로 12개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홍보관에서는 21개 시군에서 생산하는
유기농 쌀, 대봉감, 고구마와 같은 친환경
·유기농산물과 매일가공품, 유기농픽미
집과 같은 유기가공식품 등 친환경 인증
을 받은 115개 품목을 전시·판매한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대형산불 예방 숲가꾸기 박차

전남도는 산불에 따른 산림 재해 예방
을 위해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 맞춰 오
는 30일까지 순천 등 12개 시군 산불취약
지와 산불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342ha 산
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숲가꾸기를 실시
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되고 빈

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산불에 강한 숲을
만드는 숲가꾸기 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다. 이번 산불예방 숲가꾸기는 주
택, 도로, 산림휴양시설, 문화재 주변 등
산불 취약 지역의 나무 밀도를 조절하고,
산불의 시발점이 되는 가지, 낙엽, 하층
식생 등을 제거·관리해 산불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산림 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소나무
림을 솎아베고 산림 외부로 반출해 불에
탈 수 있는 연료의 양을 줄임으로써 산불
의 대형화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은
시군에서는 산불예방 숲가꾸기 산물을
'사랑의 땀길 나누기 행사' 등을 통해 어
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키로 했다.

오지현 기자